



협회, 중동지역 경제단체 SME, YAL과 업무협약체결

- 벤처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및 중동 자본의 국내 투자유치 기대

협회(회장 백종진)는 10일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아우르는 유력 경제단체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Establishment (셰이크모하메드 재단:SMB) 및 Young Arab Leaders (YAL)와 한국 중동기업간 기술교류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구로동협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각 단체는 이번 협약에 근거하여 우수한 기술을 소유한 한국의 벤처기업이 기술제휴 등을 통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동 자본의 한국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단체

소속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기술협력, 상호 투자 등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 및 프로젝트의 공동 육성 등 향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셰이크모하메드 재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및 주변 중동지역의 주요 경제 분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Young Arab Leaders는 두바이 국왕인 셰이크 모하메드의 주도로 2004년 창설된 단체인 현재 두바이 본부를 비롯하여 비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등 중동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하메드 카마스(Mohammed Khammas) YAL 회장, 백종진 벤처협회장, 압둘 바셋 모하메드 알자나히(Abdul Baset Mohammed AlJanahi) SME 회장



중외제약 및 인터파크게임즈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협회는 19일(목)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외제약, 인터파크게임즈 초청 구매상담회”를 중소벤처 30개사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개최해온 ‘대기업 초청 구매상담회’는 대기업별 구매 프로세스 설명회 및 1대1 구매상담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또한 홍보지원 및 구매자금 등을 연계하여 초기성장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중소·벤처업체가 대기업 바이어들과 계약 및 협력업체로 등록절차 진행을 받고 있는 본 행사는 이번 중외제약(바이오 부문), 인터파크게임즈(게임 부문) 초청 구매상담회를 통해서도 다수의 후속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매상담회에 참가하는 중외제약 관계자는 “많은 수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및 제품정보를 브이마켓(www.v-market.co.kr)을 통해 보유 기술력 및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몇몇 기업은 중외제약의 사업모델과의 매칭이 가능하고, 이들 기업 외에도 구매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협력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벤처최고경영자과정 5기 수료

17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5기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3월 1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4주간 진행된 본 과정에는 총 26명의 벤처기업 CEO 및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국내워크샵, 일본 연수, 조찬강의, 부부동반 교양강좌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벤처기업인간 교류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들을 보냈다. 6기 과정은 오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며, 올 가을에는 총동문 체육대회와 산행, 골프대회 등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굵직한 행사들도 마련될 계획이다.